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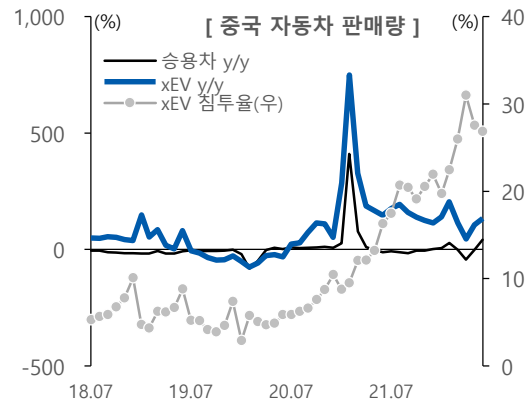


중국 경기부양 의지와 전기차 구매세 연장

1.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와 전기차 구매세 면제 연장 조치

- 중국 당국 하반기 무리한 경제성장을 달성보다 경기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과 소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국무원 상무회의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세 면제 정책 추가 연장 발표.
- 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 자동차 하향 정책적 추진 속 하반기 전기차 시장 호황 지속 예상.

전기차 판매 호조로 전기차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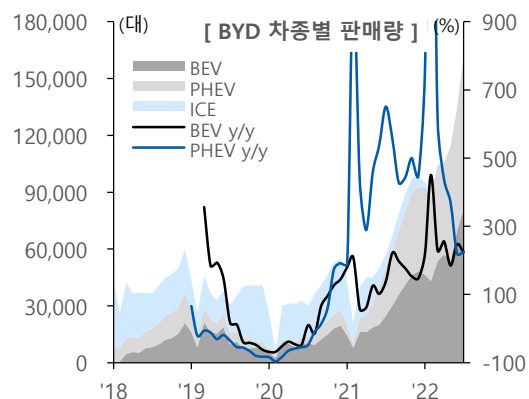


자료: CAA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전기차와 이차전지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1위 기업

- 중국 1위 전기차 기업 BYD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325%(y/y) 급증하며 중국 시장 평균(117%) 크게 상회, 국내 시점율이 13%(1H21)에서 25%(1H22)로 2배 확대.
-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 내재화, 블레이드 배터리 등 기술 개선에 따른 차량 가격 경쟁력 및 프리미엄 차량모델의 판매 호조에 기인.
- 해외 수출과 이차전지의 대외 판매 확대는 동사 성장에 긍정적 요인. 7월 동사 수출 4,026대로 +137.4%(y/y) 증가.

BYD 전기차 판매량 빠른 증가세



자료: BYD,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당국의 경기부양 의지와 전기차 구매세 면제 연장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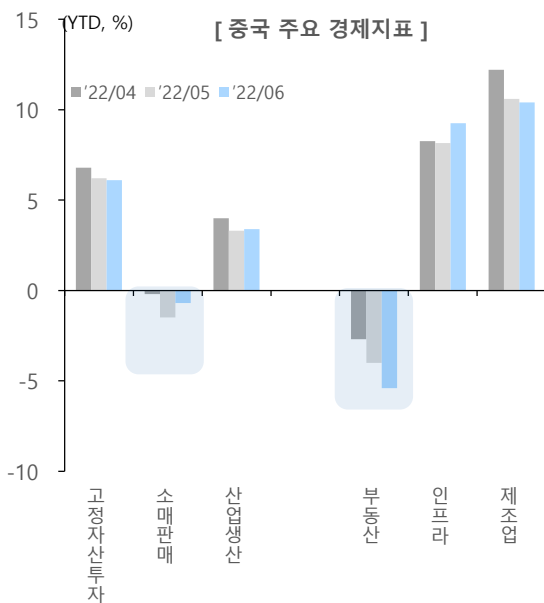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와 수요 둔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며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 상하이 고강도 봉쇄 조치 여파로 부진한 경제성장률(0.4%)을 기록하면서, 당국은 기존에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치(5.5%)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성장보다 경기 안정에 중심을 둘 것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과 소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의 구매세 면제 정책을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관련 부처에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7년과 2020년 구매세 면제 연장 기간이 각각 3년, 2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최소 1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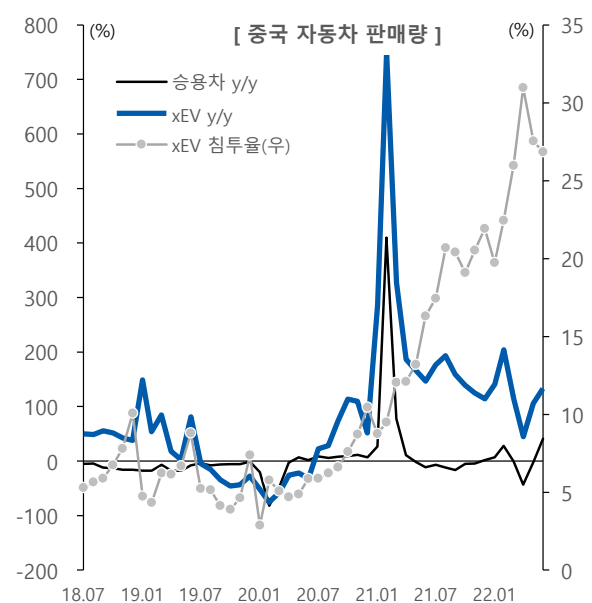
당국 전기차 구매세 면제 정책 연장, 전기차 하향(下乡)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충전 인프라 확대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하반기 전기차 시장은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상반기 전기차 판매량 259만대로 YoY +117%).

[차트1] 경기 하방 압력 속 하반기 부동산 시장 및 소비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



자료: 국가통계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전기차 판매 호조로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



자료: CAA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전기차와 이차전지 동반 성장이 기대되는 1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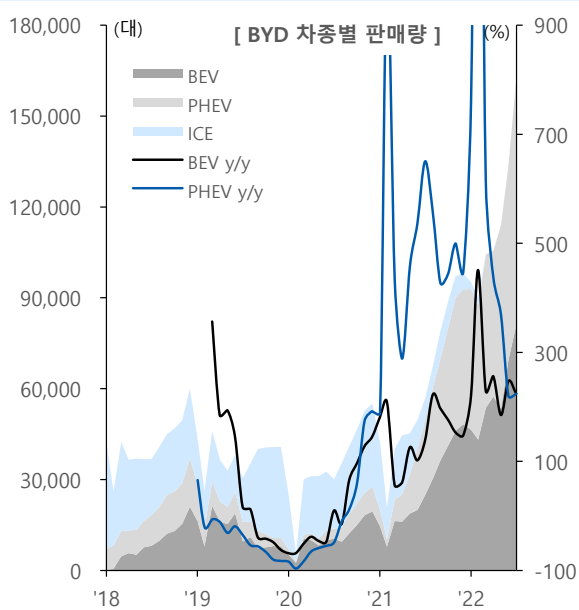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BYD의 약진이 돋보인다. 상반기 동사 전기차 판매량은 +325%(y/y) 급증하며 중국 전체 전기차 시장 평균(117%)을 크게 상회했으며, 국내 시장점유율이 13%(1H21)에서 25%(1H22)로 2배 확대됐다.

BYD의 호조세가 유독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1)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 자체 개발에 따른 수직계열화 구축으로 차량 반도체 수급난에도 공급 차질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2) 블레이드 배터리를 통한 기술 개선으로 차량 가격 경쟁력 구비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동사는 중저가 모델뿐만 아니라 테슬라 Model3와 견줄 수 있는 스펙을 장착한 HAN(汉), SEAL 모델 출시를 통해 고가 시장에도 공략하고 있는 모습이다. 판매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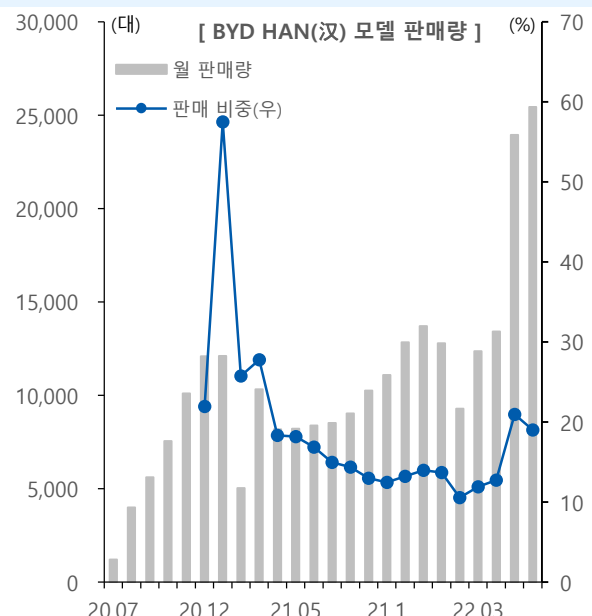
해외 수출 확대와 이차전지의 대외 판매 확대도 향후 동사 성장에 긍정적인 부분이다. 7월 동사 수출량은 4,026대로 +137.4%(y/y), +84.9%(m/m) 증가했다. 이차전지부문은 향후 본격적인 대외 판매를 위해 사업부문을 따로 분리하여 상장시킬 계획이다.

[차트3] BYD 전기차 판매량 빠른 증가세.



자료: CAA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BYD 프리미엄 모델인 HAN(汉)의 판매 호조.



자료: 연론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